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Hymn 35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오현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24:1-7	인 도 자
설 교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495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남영아 권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금)
수요성경공부	매수오후 7시 (예정)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0월 28일 제65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다윗에게 그동안의 모든 고초와 설움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사울은 3천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황무지를 이 잡듯이 뒤지다가 어느 굴에 이르러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큰 일보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은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이 급한 용무로 굴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한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겨질 만큼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다윗을 설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도 수차례나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천이라는 대규모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를 이 잡듯이 수색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울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굴에 홀로 들어왔고 이런 사울을 다윗이 죽인다 하여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굴 안에 들어 왔을 때에 그의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베었던 그 칼을 가지고 사울에게 접근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베기 위해 칼을 빼어든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인간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또 다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복수 또는 처벌의 기회는 또한 용서의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아니라 원칙과 진리를 붙잡는 믿음만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언젠가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였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오히려 사울을 용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해치려고 했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착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인격적 결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용서는 인격이 훌륭하기에, 마음이 착하기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수준이 곧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절대적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곧 믿음입니다. 용서는 곧 영성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직접 칼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죄나 악을 용납하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코 다른 이들의 죄나 악을 용납하고 인정하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용서는 사람의 진노와 응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응징이나 보복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내게 받지 못한 응징이나 보복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2. **다음주 예배 후 사역보고 및 월례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사역별로 준비해주시고 사역보고를 홈페이지 사역보고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월드비전 기아 돕기에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월$30.00)**
4. **가정교회별로 가정교회 모임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새벽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5시30분에 모입니다. 기도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 **김갑년 권사님이 텍사스 자녀방문을 위해 한 달간 출타하십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00.00	
감사헌금:	$210.00	
주일헌금:	$27.00	
특별헌금:	$0.00	**합 계: $387.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